

<2014.12.30~2014.12.31.>

全北日報

2014년 12월 31일 수요일 012면 자치시대



고창군이 개최한 예향천리 마실길 생태체험걷기 행사 참가자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창 마실길 걸으며 아름다운 자연 만끽”

군, 생태체험 걷기 행사 개최 트레킹 동호인 등 100명 참여

고창군은 예향천리 마실길 생태체험걷기 행사를 지난 20일~21일, 27일~28일 2회에 걸쳐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생태관광협회 회원, 생태관광 전문가, 트레킹에 관심있는 동호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마실길의 아름다움과 청정한 고창을 만끽했다.

첫 날은 고창읍성 광장을 출발하여 성곽 길과 편백 숲길을 거쳐 다시 고창읍성까지 돌아오는 약 12km 코스를 걸었다. 고창읍성과 전불길, 은은한 향가득한 편백 숲길을 걸으면서 고창의 아름다운 모습을 구석구석 만끽했다.

둘째 날은 고인돌공원과 운곡습지를 탐방했다.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운

곡습지는 생태적으로 우수한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지역이며, 자연환경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이 됐다. 일정 마지막에는 자연생태 우수마을로 지정된 용계마을을 찾아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지역특산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도 가졌다.

군은 이번 행사를 통해 얻은 참가후기와 설문을 받아 내년에는 더욱 알찬 프로그램을 구성, 고창의 생태관광을 전국에 알릴 계획이다.

행사 참가자들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의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고 체험할 수 있어 너무나도 행복하고 뜻 깊은 시간이었다”며 “우수한 환경자원을 잘 활용하여 새로운 생태관광도시로 발돋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성규기자



고창군이 예향천리 마실길 생태체험걷기 행사를 지난 20일~21일, 27일~28일 2회에 걸쳐 개최했다.

마실길 걸으며 아름다운 고창 만끽

생태체험걷기 행사 개최

2회 걸쳐 100여명 참가

고창군(군수 박우정)은 예향천리 마실길 생태체험걷기 행사를 지난 20일~21일, 27일~28일 2회에 걸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생태관광협회 회원, 생태관광 전문가, 트레킹에 관심도가 높은 동호인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마실길의 아름다움과 청정한 고창을 널리 홍보했다.

첫 날은 고창읍성 광장을 출발하여 성곽 길과 편백 숲길을 거쳐 다시 고창읍성까지 돌아오는 약 12km

코스로 고창읍성과 전불길, 은은한 향 가득한 편백 숲길을 걸으면서 고창의 아름다운 모습을 구석구석 만끽했다. 둘째 날은 고인돌공원과 운곡습지를 탐방했다.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운곡습지는 생태적으로 우수한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지역이며, 자연환경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이 됐다. 일정 마지막에는 자연생태 우수마을로 지정된 용계마을을 찾아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지역특산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도 가졌다.

행사 참가자들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의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고 체험할 수 있

어 너무나도 행복하고 뜻 깊은 시간이었다며 우수한 환경자원을 잘 활용하여 새로운 생태관광도시로 발돋움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우정 군수는 “지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청정한 환경자원을 활용하여 세계적인 생태도시로 성장하도록 노력하겠다. 보전과 개발을 조화시켜 군민이 행복한 고창, 방문객이 힐링되는 고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얻은 참가후기와 설문문을 받아 내년에는 더욱 알찬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고창의 생태관광을 전국에 알리겠다”고 밝혔다. 고창=임동갑기자



고창군이 예향천리 마실길 생태체험걷기 행사를 개최한 가운데 행사에 참여한 한국생태관광협회 회원, 생태관광 전문가, 동호인들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예향천리 마실길 아름다운 고창군 만끽

생태체험걷기 행사 100여명 참석 열기 '후끈'

고창군이 예향천리 마실길 생태체험 걷기 행사를 지난 20일~21일, 27일~28일 2회에 걸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생태관광협회 회원, 생태관광 전문가, 트레킹에 관심이 높은 동호인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마실길의 아름다움과 청정한 고창을 널리 홍보했다.

첫날은 고창읍성 광장을 출발해 성곽 길과 편백 숲길을 거쳐 다시 고창읍성까지 돌아오는 약 12km 코스로 고창읍성과 전불길, 은은한 향 가득한 편백 숲길을 걸으면서 고창의 아름다

운 모습을 구석구석 만끽했다.

둘째 날은 고인돌공원과 운곡습지를 탐방했다. 랍사르습지로 지정된 운곡습지는 생태적으로 우수한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지역이며 자연환경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이 됐다.

일정 마지막에는 자연생태 우수마을로 지정된 용계마을을 찾아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지역특산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도 가졌다.

행사 참가자들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의 아름다

운 자연을 만끽하고 체험할 수 있어 너무나도 행복하고 뜻 깊은 시간이었다"며 "우수한 환경자원을 잘 활용해 새로운 생태관광도시로 발돋움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우정 군수는 "지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청정한 환경자원을 활용해 세계적인 생태도시로 성장하도록 노력하겠다. 보전과 개발을 조화시켜 군민이 행복한 고창, 방문객이 힐링되는 고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얻은 참가후기와 설문을 받아 내년에는 더욱 알찬 프로그램을 구성해 고창의 생태관광을 전국에 알리겠다"고 밝혔다.

신익희기자/syhee5311@hanmail.net

전라매일

2014년 12월 31일 수요일
009면 지역



고창군, 예향천리 마실길

생태체험 행사 2회 개최

고창군은 예향천리 마실길 생태체험 걷기 행사를 지난 20일~21일, 27일~28일 2회에 걸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생태관광협회 회원, 생태관광 전문가, 트레킹에 관심도가 높은 동호인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마실길의 아름다움과 청정한 고창을 널리 홍보했다.

첫 날은 고창읍성 광장을 출발해 성곽 길과 편백 숲길을 거쳐 다시 고창읍성까지 돌아오는 약 12km 코스로 고창읍성과 전불길, 은은한 향 가득한 편백 숲길을 걸으면서 고창의 아름다운 모습을 구석구석 만끽했다.

둘째 날은 고인돌공원과 운곡습지를 탐방했다.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운곡습지는 생태적으로 우수한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지역이며, 자연환경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이 됐다. 일정 마지막에는 자연생태 우수마을로 지정된 용계마을을 찾아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지역특산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도 가졌다.

/박동현 기자

마실길 걸으며 아름다운 고창 만끽

고창군, 생태체험걷기 행사... 동호인 등 100여명 참여

고창군은 예향천리 마실길 생태체험 걷기 행사를 지난 20일~21일, 27일~28일 2회에 걸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생태관광협회 회원, 생태관광 전문가, 트레킹에 관심도가 높은 동호인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마실길의 아름다움과 청정한 고창을 널리 홍보했다.

첫 날은 고창읍성 광장을 출발하여 성곽 길과 편백 숲길을 거쳐 다시 고창읍성까지 돌아오는 약 12km 코스로 고창읍성과 전불길, 은은한 향 가득한 편백 숲길을 걸으면서 고창의 아름다운 모습을 구석구석 만끽했다.

둘째 날은 고인돌공원과 운곡습지를 탐방했다.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운곡습지는 생

태적으로 우수한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지역이며, 자연환경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이 됐다.

일정 마지막에는 자연생태 우수마을로 지정된 용계마을을 찾아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지역특산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도 가졌다.

행사 참가자들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의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고 체험할 수 있어 너무나도 행복하고 뜻 깊은 시간이었다며 우수한 환경자원을 잘 활용하여 새로운 생태관광도시로 발돋움하기를 바란다”라고 말

했다.

박우정 군수는 “지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청정한 환경자원을 활용하여 세계적인 생태도시로 성장하도록 노력하겠다. 보전과 개발을 조화시켜 군민이 행복한 고창, 방문객이 힐링되는 고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얻은 참가후기와 설문을 받아 내년에는 더욱 알찬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고창의 생태관광을 전국에 알리겠다”고 밝혔다.

/고창=조종욱 기자



고창군은 예향천리 마실길 생태체험걷기 행사를 지난 20일~21일, 27일~28일 2회에 걸쳐 개최했다.

고창, 예향천리 마실길 생태체험걷기 '호응'

고창군은 예향천리 마실길 생태체험걷기 행사를 지난 20일~21일, 27일~28일 2회에 걸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생태관광협회 회원, 생태관광 전문가, 트레킹에 관심도가 높은 동호인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마실길의 아름다움과 청정한 고창을 널리 홍보했다.

첫 날은 고창읍성 광장을 출발해 성곽 길과 편백 숲길을 거쳐 다시 고창읍성까지 돌아오는 약 12km 코스로 고창읍성과 전불길, 은은한 향가득한 편백 숲길을 걸으면서 고창의 아름다운 모습을 구석구석 만끽했다.

둘째 날은 고인돌공원과 운곡습지를 탐방했다. 랍사르습지로 지정된

운곡습지는 생태적으로 우수한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지역이며, 자연환경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이 됐다.

일정 마지막에는 자연생태 우수마을로 지정된 용계마을을 찾아 청정 지역에서 생산된 지역특산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도 가졌다.

행사 참가자들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의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고 체험할 수 있어 너무나도 행복하고 뜻 깊은 시간이 었다며 우수한 환경자원을 잘 활용해 새로운 생태관광도시로 발돋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종성 기자
kjs56730@daum.net



아시아뉴스통신
Asia news agency

인쇄하기

다운로드

고창 예향천리 마실길 생태체험 행사

(아시아뉴스통신=신흥관 기자)

뉴스일자: 2014년12월30일 12시50분



전북 고창군이 지난 28일까지 실시한 예향천리 마실길 생태체험걷기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고창군)

전북 고창군은 예향천리 마실길 생태체험걷기 행사를 지난 28일까지 두 번에 걸쳐 실시했다.

한국생태관광협회 회원 생태관광 전문가를 비롯, 트레킹에 관심있는 동호인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행사는 마실길의 아름다움과 청정한 고창을 널리 홍보하는 기회를 가졌다. 걷기 행사는 지난 20일~21일 첫 산행에 이어 27일~28일까지 2회로 이어졌다.

첫 날은 고창읍성 광장을 출발 성곽 길과 편백 숲길을 거쳐 다시 고창읍성까지 돌아오는 약 12km 코스로 고창읍성과 전불길, 은은한 향 가득한 편백 숲길을 걸으면서 고창의 아름다운 모습을 구석구석 만끽했다.

둘째 날은 고인돌공원과 운곡습지를 탐방했다.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운곡습지는 생태적으로 우수한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지역으로, 자연환경해설사 설명을 들으며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 일정으로 자연생태 우수마을로 지정된 용계마을을 찾아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지역특산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도 가졌다.

행사 참가자들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의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고 체험할 수 있어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박우정 군수는 “지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청정한 환경자원을 활용 세계적인 생태도시로 성장하도록 노력하겠다. 보전과 개발을 조화시켜 방문객이 힐링되는 고장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biz04@hanmail.net
제보전화 : 1644-3331

이 뉴스클리핑은 <http://www.aneWSa.com>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

Copyright © 2009 (주)아시아뉴스통신 All rights reserved.

첨단기